

#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를 재판에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단독법원으로 본 간음미수 범행에 대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지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신빙성 부족하다"며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원심은 이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할 때 박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는 등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김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박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간음미수 범행 공모 및 합동관계 유죄로 인정 항소심 학부모 3명 징역 7년·8년·10년 선고

다. 다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합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뉴스스



차례절 배우는 어린이들 26일 서울 종로구 신내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5회 어린이 차례절 발표회'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다도 예절을 배우고 있다.

## 미수습자 가족들 "세월호 수색 작업 연장" 호소

"여한 남지 않게 최선을"…피블이 만나고 싶은 간절함 토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날 말 마무리될 예정인 선체 수색 작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혁규군 등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26일 오후 목포신항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한이 남지 않게 남은 5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들은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잠문 지역에 남아 있던 상하이 셀비지도 철수했다"며 "객실과 화물칸 수색을 끝으로 더 이상 세월호에는 미수습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수색을 종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기관실로 통하는 문은 모두 개방돼 있고, 지난 11일 기관실에서 인골이 발견됐다"며 "이는 유실 방지 작업을 철저히 했다는 해수부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엔진룸, 타기실 등 기관실이 빨리 가득 차 있는데도 수

색을 마무리하겠다는 해수부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관실 전체에 대한 수색 계획을 마련하고 선체 직립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 마지막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 도움을 호소하는 입장도 밝혔다.

가족들은 "지옥같은 긴 여정에 지쳤지만, 피블이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 자리

에 섰다"며 "복록신항에서 영원히 못 찾는 미수습자 가족이 될까 두렵고 무섭다"고 애끓는 심정을 전했다.

이후 "그동안 저희와 함께해주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지금도 미수습자 수색을 열원하며 아파해주시는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국민과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홍규 기자

## 국민 80%, 반려견 규제 강화해야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 해당 개의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려견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온라인 조사회사 피एम이

(PMI)가 'No.1 설문조사 플랫폼, 킬리언'을 통해 20~50대 남녀 2412명에게 반려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79.5%(매우 그렇다+그렇다)가 반려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뉴스스

## 자리다툼 주먹질한 한국시리즈 암포상들 입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포상들이 자리 다툼으로 쌍방 폭행,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암포 판매 경쟁을 하다 서로에게 주먹질한 혐의(폭행)로 이모(44)씨와 김모(72)씨 형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 북구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3번 매표소 앞에서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김씨 형제에게 "다른 곳에서 잠시하라"고 발언한 뒤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두고 암포를 팔기 위해 서울에서 광주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40여장의 암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영암서 음주 트럭이 주택 돌진...운전자 부상

25일 오후 8시30분께 영암군 군서면 해장삼거리에서 이모(56)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변 한 주택 옹벽을 뚫고 주방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택 주인이 주방 옆 방에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에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암=강원훈 기자

## NC소프트 사장 부친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

윤송이 엔씨(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인 윤모(68)씨가 26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전원주택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7분께 윤씨의 부인으로부터 "남편 차량이 안 보이고 주차장에 피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을 했다.

숨진 윤씨의 차량은 주차장에서 약 5km 떨어진 문호리 공터에서 수색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돼 지문채취 등 감식에 들어갔다.

한편 수사본부를 구성한 양평서는 윤씨의 부인을 상대로 발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의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외상 흔적과 윤씨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이동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윤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용의자로 추정, 주변 방범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

숨진 윤씨는 한국증권금융 입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치추적기 부착 판 대포차 훔치려다 덜미

관매한 대포 차량을 다시 훔치려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황모(22)씨와 A(32)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B(25·여)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40분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매한 대포차량을 서울 광진구 노상에서 다시 훔치려다 막는 C씨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채무 담보물로 보관 중이던 타인 명의 중고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C씨에게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판매 이틀 후 위치추적기로 차량이 주차된 장소 확인, A씨의 지인 황씨를 통해 차량을 절도하기로 공모했다.

절도 현장에서 A씨와 B씨는 주변에서 대기하고 황씨는 미리 복제해 둔 예비 스마트키로 차량을 훔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황씨가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는 순간 이를 발견한 C씨에게 범행이 발각됐다.

C씨는 범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황씨는 C씨를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600m 가량을 운전했다. C씨는 차도에 떨어져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고 황씨는 달아났다.

대포차량이라 신고를 못할 것으로 판단한 이들은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6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스

#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남편은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술도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며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놀치고 지내, 그래서 먹고 지내 시장등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랄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상대인원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암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반말에는 검진 1년이 권장됩니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